

동문서답

나 운영

묻는 말에 똥단지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흔히 동문서답이라 한다.

30년 전 만담가로도 유명하신 황재경 목사님이 연세대 채플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말로 물으면 자녀는 영어로 대답하니 이게 동문서답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것이었다.

자녀가 부모의 물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하나 대답을 하긴 해야겠는데 우리말이 너무도 서툴기 때문에 자기에게 편한 영어로 대답해 버리는 것이 아닐는지?

일본에서 한국교회를 찾아가면 목사님이 먼저 우리말로 설교한 다음 그것을 다시 일본말로 번역해서 설교하는 기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우리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이니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염려스럽다.

한편 인도나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기네 고유의상을 즐겨 입고 떼떽하게 모국어로 이야기하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겠구나 하는 일종의 충격을 맛보게 된다.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일본 사람으로 보여 "당신 일본 사람이오?"라는 물음을 종종 받게 되니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떼떽하게 살아가는 청소년이 모두 되어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반드시 모국어로, 또한 가정에서는 모국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하나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문서답은 그저 웃고 넘길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착잡해지는구나...

<1991. 2.24 워싱턴에서>